

보건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미정¹, 임차영^{2*}

¹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²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areer Stress in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Mi-Jeong Kim¹, Cha-Young Lim^{2*}

¹Dept. of Dental Hygiene, VISION College of Jeonju, Associate professor

²Dept. of Dental Hygiene, VISION College of Jeonju, Assistant professor

요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대학생이 진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진로지도로 사회적 지지를 이용한 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으로 전주시 J 대학교 보건계열 재학생 총 30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기기입법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사회적 지지, 진로 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적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와 가구풍요도 점수가 높은 군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적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진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계열 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요인 변수로 진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가구풍요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사회적 지지는 진로 스트레스를 받는 보건계열 대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가구풍요도, 보건계열 대학생, 사회적 지지, 성적 스트레스, 진로 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 health science student affects career stres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counseling using social support as an effective career guidance. This study subject to 307 students from J university in Jeonju. The survey was conducted by questionnaire. The survey content consisted of social support, career stres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The study found that the lower the academic stress,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score in the high family socioeconomic status group and the higher the academic stress, the higher the career stress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have confirmed that social support affects career Stress. Therefore, social support may serve as a protection factor for health science students who received career stress by relieving stress and improving satisfaction with own life.

Key Words : Academic stress, Career Stress, Family socioeconomic status,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 Soci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Cha-young Lim(limcy@wonkwang.or.kr)

Received February 26,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March 28, 2019

Published May 28, 2019

1. 서론

대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진로 스트레스라고 하며[1], Lee는 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학교생활에서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진로 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2].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수동적 중·고등학교 생활로 인해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성적위주의 학업에만 몰두하다보니 대학진학을 개인의 적성과 진로보다는 성적이 맞추어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건의계열 학생의 경우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이유로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입학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음을 발견하고 학과부적응 등 스트레스를 받는 부정적인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대학생활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억압되었던 행동의 표출은 흡연, 음주에 쉽게 노출되고 수면과 식사의 무절제로 인해 신체적 건강의 약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대학 입학 후 집을 떠나 기숙사, 하숙, 자취 등의 주거생활변화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평균 40~50%에 이르고 있어 사회적 지지 체계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3]. 대학생들은 이러한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생활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겪게 되는 과정에 부적응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해야 하는 부담과 걱정으로 인하여 진로결정, 취업준비 등 또 다른 스트레스를 가중 경험하게 된다[4]. 이러한 대학생활의 스트레스는 낮은 학업성취, 대인관계 문제,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심리적 부적응[5]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대학생활의 주관적, 심리적 안녕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9].

다수의 선행 연구결과 대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Han의 연구에서 보면 실제 대학의 학생생활상담소에 상담을 받으려 온 대학생들의 상담수가 진로에 관한 문제를 호소한다고 하였다[10].

그러나 스트레스가 동일하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내·외적 자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내·외적 자원 중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11-14].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로 부터 제공 받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라고 정의하였으며[15], Cohen과 Mackay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가 건강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보고하였으며 스트레스를 완화 시키거나 효과적인 대처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16].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획득하는 물질적인 도움과 서비스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 충고, 지도, 칭찬, 이용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안락, 도움, 정보로 정의하였다[17]. 대학생들은 과도기적 시기에 있어서 심리적인 적응에 필요한 지지 자원으로써 사회적 유대와 관계, 즉 사회적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보건의계열 학생의 경우 어느 정도는 진로가 결정되어 있고 취업에 대해서도 직장을 선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생소하고 방대한 보건과 의료 전공분야 학습 및 임상실습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해당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많은 공부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보건의계열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와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 스트레스에 대한 보건의계열 대학생들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보건의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계열 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보건의계열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대학생이 진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전주시 J 전문대학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치위생과를 포함한 3개과 보건의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총 3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자기기입법으로 설문에 응답하게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2 조사도구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사회적 지지, 진로 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이 개발하고, Jo가 수정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15,18]. 사회적 지지의 세부항목은 정서적지지 7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으로 총 25문항을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조사하였고 최저 25점에서 최고 10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968(정서적지지 .913, 평가적지지 .866, 물질적지지 .759, 정보적지지 .932)로 나타났다.

진로 스트레스 척도는 Seo의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1]. 진로 스트레스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최저 12점에서 최고 48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949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년, 부모님의 교육정도, 가구풍요도, 성적 스트레스를 조사하였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진로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independent t-test)과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 및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보건계열 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검정에 사용한 유의수준(α)은 .05이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적 스트레스, 가구풍요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leq .05$). 성적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가구풍요도 점수가 높은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1. Social support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

Item	N	Social support M±SD	D	F	p
Total	317	83.99±11.89			
Grade	307	84.00±11.94		2.088	.126
First grader	118	85.42±10.52			
Second grader	95	84.15±12.26			
Third grader	94	82.06±13.09			
Educational level of father	298	84.10±11.82		1.001	.318
≤High school	140	84.83±11.36			
≥College	158	83.46±12.22			
Educational level of Mother	292	84.10±11.88		1.211	.272
≤High school	152	83.37±11.66			
≥College	140	84.90±12.12			
Family socioeconomic status	307	83.99±11.89		18.025	.000
0~5	154	81.32±11.86			
6~9	153	86.85±11.27			
Academic stress	306	84.01±11.95		3.900	.009
None	11	95.00±8.53	a		
Mild	57	84.82±11.49	b		
Moderate	179	83.74±11.88	b		
Severe	59	81.97±12.25	b		

a, b, c :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p < .05$)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 스트레스

Table 2. Career stres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

Item	N	Career stress M±SD	D	F	p
Total	316	27.67±9.51			
Grade	306	28.58±8.21		.692	.501
First grader	118	27.88±7.93			
Second grader	95	29.08±8.01			
Third grader	93	28.94±8.77			
Educational level of father	297	28.46±8.21		.389	.533
≤high school	140	28.14±8.33			
≥College	157	28.74±8.12			
Educational level of Mother	291	28.40±8.15		1.851	.175
≤high school	152	29.02±8.30			
≥College	139	27.72±7.97			
Family socioeconomic status	306	27.67±9.51		.003	.956
0~5	153	27.70±10.39			
6~9	153	27.64±8.50			
Academic stress	305	28.56±8.22		15.644	.001
None	11	20.36±10.86	a		
Mild	57	24.49±6.31	b		
Moderate	179	28.98±7.84	c		
Severe	58	32.83±7.77	c		

a, b, c :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p < .0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 스트레스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leq .05$).

3.3 일반적 특성 변수와 진로 스트레스, 성적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분석

사회적 지지와 진로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 및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와의 상관성은 Table 3과 같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 스트레스, 성적스트레스,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가구풍요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leq .05$).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 스트레스가 낮았고 성적 스트레스도 낮았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았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가구풍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Demographic Variable and career stress, Academic stress and social support

	Career stress	Grad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Educational level of Mother	School record stress	Family socioeconomic status
Social support	-0.259	-0.115	-0.031	0.035	-0.155	0.259
	.001	.043	.597	.551	.006	.001

3.4 보건의계열 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의계열 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보건의계열 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요인 변수로 진로 스트레스, 학년, 가구풍요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leq .05$), 가구풍요도($\beta = .291$)가 가장 관련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진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가구풍요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7.5%이었다.

Table 4.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Academic stress and Career stress

	Social support		
	β	t	p-value
Career stress	-.274	-4.791	.001
Grade	-.115	-2.093	.037
Educational level of father	-.021	-.322	.748
Educational level of Mother	-.044	-.672	.502
School record stress	-.037	-.652	.515
Family socioeconomic status	.291	5.258	.001
R ² .192			
Adjusted R ² .175			
Durbin-Watson 1.794			

4. 논의

대학생은 독립적인 생활환경의 변화와 전문적인 전공 학문 등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시기로 입학과 동시에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며, 대학생활의 적응에 따라 진로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적응생활과정에서 심리·사회적 적응 및 진로 선택과 장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19], 이러한 스트레스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Kim의 연구를 보면 대학 입학 후 경험하는 위험요인으로는 진로 및 취업 스트레스, 학습관련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20].

성공적인 대학생활은 사회생활 적응의 기본이 되므로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함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21,22]. Han 등은 스트레스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이라면 사회적 지지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23]. 사회적 지지는 사회구성원을 통해 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및 자존감 등의 지지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정도를 말하며, 자신의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유대감과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정도를 통해 나타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인 욕구를 지니며, 이러한 욕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직접, 간접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24].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계열 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보건의계열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진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진로지도 를 위한 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83.99 ± 11.89 점 이었다. 가구풍요도가 높은 경우와 성적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Lee와 Song의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진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진로탐색행동에 자유로움을 느끼고 진로선택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였고[24] Ryu와 Kim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 및 취업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여[25]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존감과 만족이 높아 긍정적인 생각을 보인 결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19]의 연구에서 대학 입학 후 경험하는 위험요인, 즉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대학 신입생들도 진로 및 취업 스트레스, 학습관련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하였고, Lee 등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높은 진로 스트레스 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26]. 본 연구에서는 진로 스트레스가 높은 대학생이 성적 스트레스도 높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Kim의 연구에서 진로 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의 빈도를 높인다고 보고한 결과[27]를 토대로 진로준비행동의 일환은 학습 즉 성적향상을 위한 학습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 및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와의 상관성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 스트레스가 낮았고 성적 스트레스도 낮았다. 학년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았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가구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요인 변수로 진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가구필요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Park의 연구에서 보면 사회적 지지가 진로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21], Jung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 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28]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Kim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안정적인 지지와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29] Kim, Seo와 Kim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부모, 가족과 의미 있는 소통을 할 때, 서로에게 존중 및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인식하였다[30,31].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관계를 통해 물질적인 도움이나 사회적 지원도 제공받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행복감에 경제적 여건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며 행복감이 높은 학생이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4,23,32,33]. 이는 본 연구의 가구필요도가 높은 군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진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통한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구체적인 상담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 대상이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진주에 소재하는 대학의 보건계열 대학생 중에서 표집하여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에게 일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집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표성을 지닌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다변적 요인을 고려한 척도를 사용하여 후속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대학생의 변화된 체계의 사회적 지지를 이해하고 상담 및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면 진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대학생이 진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상담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전주시 J대학교 보건계열 재학생 30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적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가구필요도 점수가 높은 경우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고($p \leq .0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적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진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leq .05$). 또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가구필요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leq .05$). 보건계열 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요인 변수로 진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가구필요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leq .05$).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사회적 지지는 진로 스트레스를 받는 보건계열 대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W. J. Seo. (2007).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optimism on level of career 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2] S. H. Lee.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parent-related career support, *Journal of Asia Pacific counseling*. 13(3), 1461-1479.
- [3] Y. J. Park 1st Author et al. (2002). Social support, stressful life events, and health behaviors of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6), 792-802.
DOI: 10.4040/jkan.2002.32.6.792
- [4] H. J. Jo. (2013). A study on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ollege student's happiness :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24(1), 157-184.
- [5] Joyce P. Yi, Ronald E. Smith, & Peter P. Vitaliano. (2005). Stress-resilience, illness, and coping: a person focused investigation of young women athlet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8, 257-265.
DOI: 10.1007/s10865-005-4662-1
- [6] K. H. Koo. (2008).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life stress and self-elasticity on school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7] H. J. Ki. (2010).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life str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ed on the moderator effect of the mindfulnes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8] O. H. Lee. (2012).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 29-57.
- [9] K. H. Cha. (2004).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3), 321-337.
- [10] J. O. Han. (2004).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career determination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self-determina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ir relation to career decision-making*.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1] K. H. Kang. (2010).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employment stres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 [12] K. U. Kim & Y. H. JO. (2011).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197-218.
- [13] K. H. Seo. (2011). Relationships between stresses, problem-focused coping, upward/downward comparison coping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8), 217-236.
- [14] J. E. Sim, H. Y. An & J. H. Ki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role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2(1), 103-118.
- [15] J. W. Park.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16] S Cohen & G McKay. (1984). *Social support, stres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A theoretical analysis*. In A Baum, S. E. Taylor & J. E. Singer(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NJ: Hillsdale.
- [17] K. Eil (1984).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a review, social service review*.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8] M. S. Jo & K. S. Choi. (2007).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sia Pacific counseling*. 8(3), 1085-1099.
- [19] E. H. Lee. (2004).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1), 25-48.
- [20] Y. S. Kim. (2003). *A study on life stress and coping style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21] J. Y. Park & S. M. Park. (2017). Influence of college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velopment level of college students who majors in health or social welfa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49(2), 180-186.
DOI: 10.15324/kjcls.2017.49.2.180
- [22] J. W. Park, M. J. Kwon. (2018). The Convergence Effect of Academic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on SNS Addiction T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Society*. 9(4), 453-460,
DOI: 10.15207/JKCS.2018.9.4.453
- [23] S. Y. Han & S. H. Yoon. (2017). Self-esteem, psychosocial distress,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index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healthcare-related college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12(2), 177-187.
- [24] H. L. Lee & J. Y. Song. (2004).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5(2), 393-407.
- [25] J. H. Ryu & T. S. Kim. (1998).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employment stress and stress response patterns. Hanyang University Student Life Counseling Institute, *University Life Research*. (16), 211-232.

- [26] H. L. Lee, S. M. Kim, M. S. Chun & S. K. Choi. (2008). A structural analysis of career stress, career barriers,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4), 59-80.
- [27] J. H. Kim. (2013). *Mediation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 [28] C. L. Jung. (2017).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 [29] K. M. Kim.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rearing attitudes,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30] M. K. Kim. (2011). Phenomenological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happiness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0), 1-34.
- [31] H. J. Seo & J. U. Kim. (2009). Self-esteem and happiness caused by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3), 141-178.
- [32] G. Y. Jo & H. S. Park. (2011).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 160-169.
DOI: 10.5762/KAIS.2011.12.1.160
- [33] M. H. Nam & M. R. Lee. (2014).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Society*. 12(10), 363-374.
DOI: 10.14400/JDC.2014.12.10.363

임 차 영(Lim, Cha Young)

[정회원]



- 2012년 3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치과대학(치의학석사)
- 2015년 8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치과대학(치의학박사)
- 2015년 6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 E-Mail : cylim@jvision.ac.kr

김 미 정(Kim, Mi Jeong)

[정회원]



- 2000년 3월 :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약학대학(약학석사)
- 2004년 3월 :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약학대학(약학박사)
- 2015년 1월 ~ 현재 : 한국치위생과학회 섭외이사
- 2015년 4월 ~ 2017년 12월 : 대한치

과위생사협회 전북회 부회장

- 2008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 E-Mail : kimmj@jvision.ac.kr